

△ 2001년도 표어 △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자

순복음 Life

제4호

발행일 2001년 3월 11일

발행인 : 한승권

위원장 : 김미진

편집처 : 문서발간위원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중앙교회 ☎ 343-800 충남 당진군 당진읍 채운리 162-1
<http://www.djfgcc.pe.kr> ✉ hagape@netsgo.com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3월의 기도>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집사 김미진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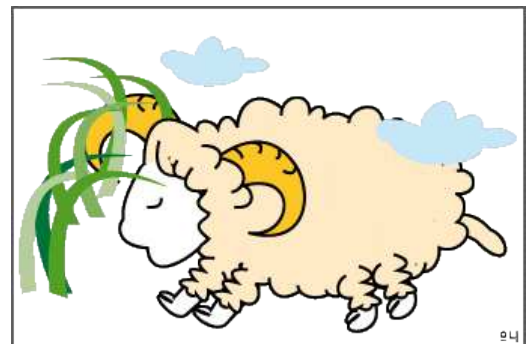
오늘도 변함 없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매 시간 매 순간마다
공고다에서 주님의 고독함을 기억하며
저 또한 그 뜻을 헤아리고 따르려 다짐하지않
경국 또 한순만이 새어 나옵니다.

하지만 주님!!
주께서 저인의 생명을 사랑하신 같이
저 또한 세상을 향하여
피와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문과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그리고 생명을 다하여
주님 가신 길을 걸겠습니다.

그 길이 진정 고독한 길이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따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에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 두 번째 이야기 : 아이에게 책 읽어하게 만들기

1. 수준보다 어려운 책을 골라준다

부모의 욕심이 앞서 아이의 수준보다 어려운 책을 골라주는 것은 책에 대한 아이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지름길. 책마다 연령을 표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만약 아이가 책읽기를 싫어한다면 아이의 수준보다 한 단계 쉬운 책을 펴보자.

2. 어른의 잣대로 책을 선택한다

지명도가 높다거나 어른이 보기에 괜찮은 책이라고 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또 외국의 유명 작가의 책이라고 해서 모두 괜찮은 것도 아니다. 아이들의 정서에 맞고 아이가 좋아하는 책이 정말 좋은 책이라는 걸 명심할 것.

3. 한꺼번에 전집으로 왕창 사준다

전집은 그 방대한 양으로도 아이를 질리게 한다. 전집류를 구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달에 몇 권씩 나누어 사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에게 한꺼번에 푸지말고 몇 권씩 나누어준다든지 여기저기 나누어 꽂아 놓고 하루에 몇 권씩 읽어주는 것이 좋다

4. 사준 책이 마르고 닳을 때까지 절대로 다른 책은 사주지 않는다.

처음에 잘 몰라 전집을 한 질 들여놓고는 '저것도 다 못 읽었는데 다른 책은 무슨 다른 책' 하며 유아의 도서 구입은 그쪽으로 마감하려는 엄마들이 있다. 아이가 그 책을 안 읽는다면 그 책이 안 맞아서일 수도 있다.

5. 동화책을 펴놓고 한글을 가르친다.

유아기 독서생활은 한글을 깨치면서 마감되는 경우가 많다. 동화책을 펼쳐 놓고 '수'자 어디 있니? 하는 분위기가 되면 아이는 당연히 책보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책을 펴면 글자가 먼저 눈에 들어와 그림으로 언어야 할 많은 것을 놓치게 될 수 있다.

6. 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해도 읽어주지 않는다

책의 내용에 호기심이 발동해 읽어달라고 하는 아이의 요구를 번번이 묵살한다면 아이는 다시는 책을 읽어달라고 하지 않을뿐더러 스스로도 읽지 않을 것이다. 책을 읽어주는 시간은 아이가 부모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므로 자주 마련할수록 좋다.

7. 책은 커다란 책장에 가지런히 정리해 놓는다

아이의 손도 닿지 않는 높은 책장에 손어도 안 틀리게 가지런히 책을 꽂아놓는다면 아이는 책을 읽을 엄두가 나지 않을 것이다. 아이의 키가 닿는 곳에 좀 험렁하게 꽂아 마음에 부담을 덜어준다.

<다음 호에 계속>

알뜰살뜰 “아나바다”

●물품1 : 헤어드라이기 (10년 사용, 자주색, 상태 양호, 가격 700원)

* 제공자:손현숙 권차님

※ 아나바다 수익금 전액은 선교사업에 쓰여집니다

☎ 연락 전화 353-4515(김지진) 353-3516(이종희)

생명의 양식

제목 : 은혜 안에 있는 너희여

성경 : 시 31:19-24

「성도님 얼굴을 보니 은혜가 넘칩니다」 라고 서로 인사합니다.

요즘 마스크를 타고 ‘비타민C’가 안방과 직장 심지어 교회 안에도 정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상이 없이 좋고 모든 것에 효험이 있다는 말에 모두들 정신이 없습니다.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걱정이 됩니다.

말씀, 기도, 찬양으로 강건해야 할 목회자나 성도들이 너무 비타민C에 자신의 건강을 맡기게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는 만사형통, 만병통치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 하나님의 보화가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복, 건강, 사업성공, 자녀장래, 부부사랑, 부모효도, 지혜, 지식, 사랑, 용서, 화목, 행복 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중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능력과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란 사람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 * 하나님을 절대 믿고 의지하며
- *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 *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합니다.

2. 하나님 성전 안에서 살아갑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교통하며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만드신 장소입니다.

- *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
- * 은혜가 넘치게 임하는 곳
- * 생명이 소생되는 곳
- * 환란을 면하게 하십니다.

3.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베푸시는 분이시며, 넘치고 풍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 * 응답주십니다.
- * 크게 부르짖어야 하며
- * 입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4.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므로 가능해 집니다.

- * 사랑에는 교만이 없습니다.
- * 헌신을 합니다.
- * 복을 주십니다.

5. 세상에 대하여 담대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승리할 수 없으며, 면류관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 * 장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 * 사탄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론> 할렐루야!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사망으로 가득 채워 가는 세상을 향해 크게 외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며 평강과 기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중에 있는 여러분이 복된 자요, 생명을 지닌 자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요, 장차 면류관을 받을 자임을 목사는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순복음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더욱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생활상식

1. 옷장속 방충제 위에 두어야 효과, 두 종류 이상 사용땐 옷에 얼룩

방충제에서 발산되는 가스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 퍼진다. 따라서 방충제는 옷장 바닥이 아닌 위쪽에 두어야 효과적이다. 또 2종 이상의 방충제를 함께 사용하면 안된다. 화학반응을 일으켜 의류에 얼룩이 지거나 변색된다.

2. 장뇌, 나프탈렌 같이 사용하면 옷에 '얼룩'

시장에 팔고 있는 방충제로 장뇌와 나프탈렌이 있다. 이들 두 가지 방충제를 함께 사용하면 화학작용을 일으켜 옷에 얼룩이 질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방충제를 사용할 때는 옷이 약품에 직접 닿지 않도록 헝겊이나 종이 등에 싸서 넣고, 옷장에 넣어둘 경우엔 화학조미료 병에 넣어 두는 것이 안전하다.

3. 세탁소 의류 비닐 벗겨 완전히 말린 뒤 옷장 보관해야

세탁소에서 드라이클리닝을 해서 비닐 커버를 씌워 가지고 온 의류를 그대로 옷장 속에 넣어두면 안 좋다. 세탁소에서 찾아온 옷은 증기가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탁소에서 의류를 찾아오면 반드시 비닐을 벗긴 다음 통풍이 좋은 그늘에서 완전히 건조시켜 옷장에 넣어두도록 한다.

4. 부츠 안 신을 때 흙통에 사이다병 등 넣어놓기를

부츠는 잘못 간수하면 모양이 망가진다. 따라서 평소 부츠를 벗어놓을 때마다 부츠의 흙통에 사이다병 등을 넣어두면 좋다. 겨울이 지나서 보관할 때는 습기를 제거한 뒤 신문지를 구겨서 앞발 끝까지 채워 넣는다. 그런 다음 다리부분의 흙통에 신문지를 원통형으로 넣은 다음 비닐 봉투에 넣고 입구를 줄라매 벽장의 천장에 매달아 보관한다.

율법과 복음 : Law and Gospel

[영] Law and Gospel [독] Gesetz und Evangelium 율법과 복음의 문제는, 성서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고찰할 때, 두 가지 방면 내지 관계가 생각된다. 그것은 각각 「율법과 복음」, 「복음과 율법」이라는 말로 표현하여도 무방하리라. 이들 두 방면은 분리할 것은 아니고, 서로 결부시켜 통일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율법과 복음」 신약성서에 있어서는, 구약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관계가 명확하게 말해져 있다. 즉 모세에 의해 대표되는 구약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성취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 견해는 율법만이 위에 서는 율법주의와는 달리, 율법의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 관계를 인정하고, 그 목표로 하는 바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 경우,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그의 가르치심뿐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신이며(롬 1:2-4), 그에 의해 성취된 구원의 역사(일하심-십자가의 속죄, 롬 3:25)이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역사(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다(롬 3:24-26).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리스도에 있어서 성취되었다는 점이 복음으로 불리우는 이유이다. 그 경우 율법의 요구는 무시되지 않고 그리스도에 있어서 성취된 것으로 보여져 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주장으로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마 5:17), 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및 로마서에 있어서 전개하고 있는 복음해석의 중심점이다. 바울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거기서 죄에 대한 율법의 성스러운 요구가 채워진 것이다(롬 3:25, 갈 3:13, 고후 5:21).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로 율법의 성취라고 보여져(롬 3:21-26, 8:3, 4, 10:4), 그리하여 십자가가 죄의 속량이라고 해석되어 있는 것이다(롬 3:24, 25). 은혜의 십자가가 율법의 성취인 까닭에, 스스로의 공로에 의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성취하신 속죄를 받는 것에 의해 죄를 사함 받으며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바울의 복음 이해의 중심점이다. 역사상으로 이 점을 강하게 주장한 것은 종교개혁자이고, 그들의 입장은 복음주의로 불리운다. 「복음과 율법」 이것은 K. 바르트가 쓴 어법(語法)이다. 복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에는 당연히 율법이 그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신앙서적을 읽고서

제목 : 아들에게 보내는 47가지 인생독본

저자 : 체스터 필드



이 책의 저자인 체스터 필드는 문인이며 정치가이며 외교관이었다. 그는 아버지로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편지를 이용, 자기의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혜를 전하여 주고 있다. 그는 착하고 성실한 삶 뿐 아니라,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과 스스로 '인간이 갖는 비천한 마음'이라 표현했던 허영심까지도 사람은 갖고 있어야함을 아들에게 충고해 주고 있다. 그는 이처럼 자식에 대한 사랑 기대를 마음에만 담아두기 보단 서신을 통한 훈계와 조언으로서 표현했던 것이다.

"나는 너 이외의 어느 누구에게든 이런 조언을 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은 책 속에 나온 편지 구절로서, 저자가 아들에게 전하여준 말이다. 아들에 대한 그의 사랑과 욕심 기대 애착 등 그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아버지의 마음을 잘 나타내 주는 구절인 듯 싶다.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마는 그 사랑하는 자신의 분신들에게 올바른 교훈으로 바르게 교육시키며 키워낸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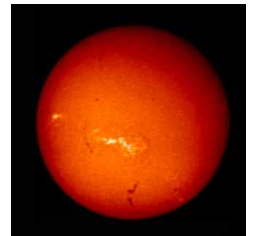
나는 이 책을 대하면서 나의 부모된 모습을 여러 번 떠올렸었다. 과연 지금껏 우리 아이들에게 커가며 되새길 줄 할 수 있을만한 교훈을 몇 마디나 심어줬었는지...

부모로서의 나의 모습을 새삼 반성해 본다

<글 : 이종희 성도>

성경과학

- 태양 -



태양은 전체가 고온의 기체 덩치로서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타고 있는 불덩어리이다. 중심부의 온도는 수천만 도에 이르나 표면은 6,000도 정도이고 직경은 1,392,000km로 지구의 약 109배, 크기는 지구의 33만 3천 배, 평균 밀도는 지구의 약 4분의 1 정도이다.

태양과 지구의 평균 거리는 1억 5천만km로 태양에서 출발한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데 8분 20초 가량 걸린다.

태양은 빛, 열, 자외선, 적외선 등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태양은 지구에 대하여는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는 별이지만 우주 전체로 볼 때에는 평범한 별에 불과하다. 태양의 위치가 조금만 변해도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타버리거나 얼어붙을 것이다. 지구와 태양간의 거리 뿐 아니라 지구의 자전 속도도 태양 에너지가 분산되는 것을 돕는다. 또한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돌고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 우연일 수 없다. 그것들은 창조주의 설계에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시편 19편 6절은 태양이 지구의 에너지원임을 시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구 위에서는 태양의 온기를 피해 숨을 자가 없다. 또한 욥기에는 태양이 지구 위에서 부는 바람의 근원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광명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땅에 흠어지느냐"(욥기 38장 24절). 시편 19편 5,6절에는 태양의 운동에 관해 놀랄만한 과학적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태양의 운동은 근래에 와서야 확인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태양이 우주 공간에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했었다. 시편 19편 5,6절에서는 태양의 운동을 그의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고 아름답게 비유하였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어"(시편 19편 6절).

태양은 실제로 가만히 있지 않고 다른 항성을 향해 초속 수십k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음이 최근에 확인되었다. 그러나 시편 19편 5,6절에서 말하는 태양의 움직임은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태양이 동에서 서로 움직임을 다른 항성을 향해 움직이는 운동으로 생각하고 있다.(역자 주)

말라기 4장 2절에서는 태양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표현했다. 비슷한 표현법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도 나오는 데 거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벽이라고 부른다. 태양은 낮 동안에 볼 수 있는 유일한 별이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취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베드로후서 1장 19절).

개요

이삭은 이스라엘의 2대 족장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아들이며, 제물로 바쳐진 희생 양의 모형이기도 하다. 그의 이름 <יִצְחָק> ; 이츠하크>는 '웃음'이라는 뜻이다.

1. 시대와 성장 배경

이삭은 이스라엘이 아직도 국가 형태를 갖추지 못한 족장 시대에 활동하였다. 그는 B. C. 2066년경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났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이삭의 출생을 약속하셨는데 25년 만인 100세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이다. 이삭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음으로써 히브리인 가운데서 이러한 할례를 받은 첫번째 사람이 되었다. 이삭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이 형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의 종인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여 낳은 아이였다. 따라서 이삭은 이스마엘 형으로부터 미움과 조롱을 받았으며, 끝내는 이 일로 인하여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되었던 것이다.

2. 이삭의 생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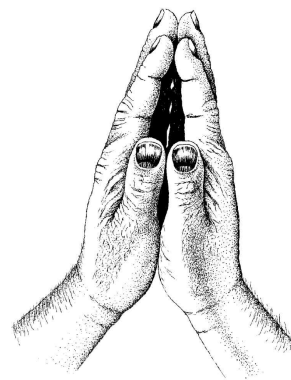
그런데 2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어 인내하며 기도하던 중 60세에 쌍둥이에서와 야곱을 낳았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추방시킨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독자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다. 이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이삭도 도망갈 수 있는 힘과 명분도 있었으나 온전히 순종하여 희생 제물이 되고자 하였을 때 여호와 이레의 은총으로 무사히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이삭은 40세에 아브라함이 맺어준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훗날 이삭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 거짓말했던 것처럼 기근이 들어 그랄 지역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거짓말을 했다가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기도하였다. 한편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그때마다 블레셋인들의 시비를 받아 우물을 양보하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우물을 파기를 7번이나 하였다. 이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서 이삭과 화친 계약을 맺기도 하였다. 말년에 이삭은 장자인 에서 대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간구하여 야곱으로 하여금 약속의 자녀 곧 영적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3. 이삭의 성품과 신앙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순순히 제물로 바쳐질 정도로 순종의 사람이었으며, 이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을 예표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삭은 자신의 아내까지도 아버지께 일임하고 자신은 들에서 목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생명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하여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고, 에서를 편애하는 소심한 성격때문에 가정의 불화를 야기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야곱을 선택한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던 어리석음도 이삭에게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목상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통에 힘썼으며, 참으로 귀한 우물을 끝까지 양보하는 인내의 미덕도 갖고 있었다. 아울러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과 특권을 항상 감사하며 이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다.



시작이 반이라더니 어느새 일년도 다 지나가고
 정말 마무리 할 시간이네요,
 되돌아보니 아무것도 이룬 것 없는 시간들이었네요,
 이루기보다는 지금까지 쌓아올린 정성의 시간들이
 다 무너지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세상과 타협하고, 거기에서 웃음을 찾으며 살아왔던
 고개를 들 수 없는 한해였어요,
 이루기는 힘들어도 이루어 놓은 것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라는 걸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중 이예요,
 교회의 다른 성도들은 다들 성장하였는데
 저는 제자리걸음도 아니고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다니....
 목사님 뵈면 면목도 없고요.... 나 자신에게 화가 나서.....
 너무 속상해요,
 저를 위해 눈물 흘려주신 목사님을
 늘 기억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네요,
 요즘은 빈휘를 보면서 도전 받고 은혜 받고 그래요,
 애는 엄마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커져 있더라구요,
 한마디씩 던지는 말에 놀랄 때가 많아요,
 저보다 훨씬 좋은 믿음을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며
 흐뭇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아이 앞에서 몸들 바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지면
 괜히 애한테 화를 내기도 한대요, 바보같이....

지난 24일 그러니까 주일날이지요...
 습관처럼 주보하나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갔지요,
 펼쳐 보니 예배순서 옆면 그러니까 3면이던가요?
 그 면만 인쇄가 되지 않은 채 하얀 백지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나가서 다른 것으로 가지고 들어 왔어요,
 온 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거기에는 올해 시상자 명단이 있었고 제 이름은
 보이지 않았지요...
 하나님은 올해 미진이가 하나도 이룬 것이
 없음을 미리 그렇게 하얀 백지로 보여 주심으로
 깨닫게 하셨던 거예요,
 시상자 명단이 있는 면을 하얀 백지로 보여주심으로....
 두렵고 떨리는 날이었습시다,
 꿈이 아니고 현실이라는 점에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체험을 주시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고
 아직도 보잘것없는 이 죄인을 사랑하심에 감격했어요,
 목사님... 지금 이 글을 적으면서도 목이 메어 오네요,
 목사님은 영적인 분이시라 그동안 제가 말하지 않았어도
 어떤 상태였다는 것을 대충은 아시리라 생각해요,
 그런 저를 묵묵히 지켜보시며 기도해 주심 너무 감사드려요,

처음에는 목사님께 카드 한 장 보낼 생각으로
 컴퓨터를 열었는데 어찌 하다보니 이렇게 길어졌어요,

목사님...
 언제나 건강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일 주님 안에서 행통하시길 기도 드려요,



교회창립 7주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지난해 10월 19일 창립예배를 드릴 때에 감회에 젖었던 것을 생각해 보며 부족하지만 몇 자 적어보려 합니다.

벌써 세월은 흘러 창립 7주년이 되었네요. 목사님 당전에 오셔서 처음 시작하셨을 때는 십여명 남짓한 성도들이 모여서 허름한 창고를 주님의 성전으로 세우고 예배를 드렸지요. 한 여름 찜통 더위에 에어컨 없이 선풍기 두어대로 흐르는 땀을 식혀야 했고, 서릿발 같은 추운 겨울에는 보일러 시설 없이 그저 난로를 피워 놓고 손을 비비며 호호 입김을 불며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스개 소리로 얼음 창고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우리들 중에 누구 하나 얼굴 일그러진 사람 없었고 오히려 기도는 뜨거웠고 성경 충만했으며 성도간의 사랑은 가족사랑 이상이었다고 회상해 봅니다.

그렇게 생활하다가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없어 여의치 않았고 힘에 겨웠습니다. 성전 건축할 곳의 땅 주인에 허락이 필요했고 건축비가 필요했습니다. 이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 매달려 밤잠을 아끼며 쉬지 않고 기도했지요. 그런 가운데 주님은 "성전건축" 이라는 기도 응답으로 역사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듯 지난 시간을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이 성전이 건축되기까지 눈물과 기도로 이겨내신 목사님 내외분과 한겨울 추위에 떨며 힘겹게 예배에 나오던 어린 딸, 예지.....

그 외에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떠오르고 그분들의 힘과 노력이 이렇듯 아름다운 교회로 일군 것을 생각하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지금 우리 순복음중앙교회를 둘러보면 너무 뿌듯하고 이루 말 할 수 없는 감격에 젖어듭니다.

앞으로 우리 순복음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난 시간 모두 하나되어 오늘을 일군 것 처럼 서로 단합된 모습으로 함께 하여 더 풍성하고 부흥 발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동안 고생하시고 수고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단 위에 서 계신 목사님을 바라보니 그 어려웠던 역경들을 다 헤치시고 당당하게 말씀 전하시는 모습이 너무 존경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최 순환 권사

사회 :

담임목사
한승원

강사 :

양래현 목사

축사 :

주철순 목사



사탄의 새로운 옷, 뉴-에이지운동

(NEW DRESS OF SATAN, NEW-AGE MOVEMENT)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엡2:2)

1. 사탄의 새로운 옷 뉴에이지운동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다. 사람들은 서로의 행복을 위하여 함께 모여 살게 되었는데 이러한 결합체를 '사회(社會)'라고 부르며, 사회가 더 발전한 것이 곧 '국가(國家)'이다.

사회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문화(文化)'와 '문명(文明)'이다. '문화'는 사회의 정신적인 영역을 말하며, '문명'은 사회의 물질적인 영역을 가리킨다.

문명은 돌이나 불을 사용했던 원시 사회로부터 컴퓨터와 인공위성을 사용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기술적이며, 물질적인 발전을 말한다.

그러나 '문화'는 그 사회의 정신적인 상태의 표현으로서 전통적인 풍속과 예술, 음악, 시, 춤, 문학, 건축, 철학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정신세계에 담겨진 중심 내용의 표현이라 하겠다. 어느 한 사회의 문화를 보면 그 사람들의 정신영역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는 인간들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진다. 가치관은 인생관, 세계관, 국가관, 가족관에 따라 형성되는데, 이렇게 형성된 가치관은 종교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종교(宗教)'는 신(神)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종교에 따라 가치관이 형성되며, 그 가치관은 문화를 낳고, 문화는 문명을 지배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신(神)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이나 불행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모두 종교인이다. 세계의 대표적인 종교로는 힌두교의 다신론으로부터 불교의 부처신과 유교의 조상신 그리고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의 유일신이 있다. 여기에 수없이 많은 미신과 같은 무속 신앙까지 합치면 종교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혹, "신(神)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無神論者)가 있다면, 그는 자기 스스로 자신이 신(神)의 자리에 앉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며, 그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문화의 배경은 이미 그의 조상이나 여러 사람의 종교에 영향을 받은 또 하나의 잡(雜) 종교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 모든 종교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조물주(造物主) 즉,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종교와 피조물(被造物)을 신격화(神格化)한 종교(사실상 이것은 피조물에 대한 숭배로서 종교라고 할 수 없음)이다.

'뉴에이지(New Age)'란 영어로 '새 시대'란 뜻이다. 이것은 새로운 신흥 종교 운동으로서 길으로는 세계의 평화를 외치며 모든 종교의 통합(이는 피조물 숭배종교의 결합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적 쿠데타임)을 주장하고 있는데, 뉴에이지는 현대판 무신론 사상으로써, "나도 하나님, 너도 하나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다"라고 인간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그들의 신(神)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천사인 사탄으로서 사탄의 지배를 받아 사탄의 가치관을 형성하여 사탄의 타락한 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문명을 지배하고 결국에는 그의 목적인 인간과 가정의 행복, 사회, 국가, 세계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것이다.

사탄은 지금 '뉴에이지'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어느새 우리 곁에 다정히 다가와 미소짓고 앉아있다. 심지어 교회당 안에 까지도……! 이제 그의 가증된 옷을 벗겨보자!

<다음호에 계속>

기묘묘한 봉우리로 이루어진 충남 홍성 용봉산

충남 홍성군 홍북면 용봉산은 높이 381m로 큰 산은 아니며 험하지도 않으나, 산 전체가 기묘한 바위와 봉우리로 이루어져 '남한의 금강산'이라 불릴 만큼 아름답다.

정상까지 산행하는 동안 주변의 모습이 수백장 의 한국화를 보듯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것이 용봉산의 특징이다.

이 산의 이름은 용의 몸집에 봉황(鳳凰)의 머리를 얹은 듯한 형상인 데서 유래했다. 능선을 오르다 보면 기암괴석들이 각기 제 모습을 자랑하듯 조화를 이루고 있다. 능선에 우뚝우뚝 솟은 연릉의 기암 사이를 돌고 돌아 보면 제3봉과 제4봉으로 이어지면서 용봉산의 최고 절경에 이른다.

5형제 바위가 우뚝 솟아 있는가 하면 말등바위, 칼바위, 공룡이 등 기을 세우고 성난 듯 엮드려 있는 바위 등 기암이 발길을 멈추게 한다. 이곳에서의 전망은 북쪽 산허리에 파란 저수지가 보이고 서북쪽으로 덕송산이 손에 잡힐 듯하며 그 뒤로는 가야산이 우뚝 솟아있다. 남쪽으로는 홍성읍과 그 왼쪽으로 삽교천 일대의 널따란 평야가 눈에 들어온다.

용봉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예산의 덕송산, 서산의 가야산 경치도 일품이다. 이성계(李成桂)의 위화도 회군으로 북벌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최영(崔瑩) 장군은 홍성 출신으로 용봉산의 기를 받고 자랐다. 성삼문, 김좌진, 한용운 선생도 이곳 출신이다. 이것이 홍성이 '충절의 고장'으로 불리는 이유다. 용봉 산행을 마치고 이들 역사적 인물의 생가를 둘러볼 수 있다.

김좌진 장군의 생가는 갈산면 행산리에 있다. 이곳에서 가까운 결성면 곡성리에는 한용운 선생의 생가가 있다.

잔솔이 뺨뺨한 능선을 30여분 가면 용봉산 산행을 마치게 되고 능선 끝에 만성관절염, 신경통, 생식기질환, 피부미용, 피로회복에 효험이 있는 덕산온천이 있어 산행의 피로를 말끔히 풀 수 있다. 덕산온천에서 수덕사 가는 길로 500여m만 가면 길옆에 있는 운봉길 의사생가와 충의사를 둘러 볼 수도 있다.

홍성시장에서는 전국적으로 이름난 광천읍 독배새우젓을 구할 수 있고, 독배새우젓은 자연동굴에서 보관해 맛이 뛰어나다.

시간 여유가 있으면 홍성 읍내 곳곳에 있는 조양문, 홍주아문, 홍주성, 홍주의사총 등을 둘러보는 것도 괜찮다.



<원장찌개>

성도의 맛사랑

안녕하세요. 강유순 집사입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주님의 축복받은 삶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 재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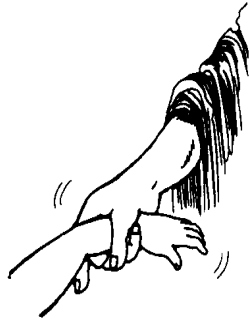
☞ 된장 2스푼, 풋고추 1개, 양파 1/2개, 달래 200g, 다시다 1스푼, 풋 마늘잎 2뿌리, 마늘 2개, 두부 1/2모, 바지락 100g, 고춧가루.

◎ 만드는 법◎

- 1....풋고추와 마늘잎은 5cm 정도의 어슷 썰기를 하고, 양파와 두부는 깍둑썰기 한다. 달래는 깨끗이 씻어 먹기 좋게 자르고 마늘은 다져 놓는다.
- 2....된장을 독배기에 넣고 풋고추와 양파, 달래 마늘잎 그리고 다시다를 넣고 버무린다.
- 3....2번에 3컵 정도의 물을 넣고 마늘과 바지락, 두부를 넣고 끓인다.
- 4....마지막으로 그 위에 고춧가루를 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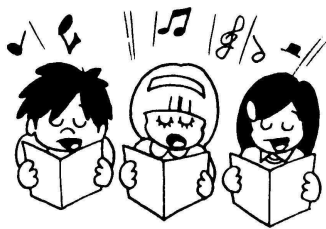


제공 :
강유순 집사



주님여 이손을 꼭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손을 꼭잡고 가소서 -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
악하고 피곤한 이몸을 -
주님여 날도와 주소서 -
폭풍우 호암속 헤치사 빛으로 -
외치는 이소리 귀기울이시사 -
손잡고 - 날인도 - 하소서 -
손잡고 - 날인도 - 하소서 -



삼행시

==> 백설공주 <==

백 : 백반이 말했당
설 : 설렁탕이 말했다
공 : 공기밥도 말했다
주 : 주방장이 기절했다

찬양으로 받은 은혜

김보경 권철

세상의 시련과 어려움을 겪어오던 올 봄.
날 저녁예배 드리고 싶은 생각은 하지만
참석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저녁예배에 가게 되었다.
부르면서 정말 감사의 눈물과 애원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나오면서
내 손을 붙잡아 달라고 주님께
내밀고 싶었던 찬송이다.
항상 난 어두운 그늘에 있는 것 같고
인생이 힘들게 여겨지고
시대와 남편이 믿지 않아서 겪는 갈등이 있고
또한 고난이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나의 손을 꼭 잡고 가달라고
애원하고 싶었던 찬송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주님을 믿다가
잠시 세상 속에 있었던 나를 다시 건져
지금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손을 꼭 잡고 계셨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 감사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주님 손잡고
힘들 때마다 또한 기별 때에도
항상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라고
찬송을 부르면서
주의 인도하시는 데로 살기를 다짐한다.

*** 외계인 ***

외 : 외계인이 온다
계 : 계속 온다
인 : 이제 간다

◆ 웹진이란?

웹진이란 웹 매거진의 줄임말로 웹상에서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규칙적으로 발행되어지는 전자잡지를 말한다. 그리고 컴퓨터에 의해 디자인되고 컴퓨터 통신에 의해 배달되는 것을 말한다.

웹진의 구성이나 편집은 일반잡지와 동일하다. 다만 출력형식에 따라 기존 종이매체를 사용하면 일반잡지로, 웹을 통하여 보여지면 웹진으로 나뉘어진다.

현재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이 발전하여 웹진에서는 기존 잡지에서 볼 수 없었던 동영상이나 음악, 소리 등 멀티미디어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현재 웹진이 출판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그러나 향후 정보 통신의 발전과 더불어 현재도 다소 쇠퇴하고 있는 종이매체를 대체할 새로운 뉴미디어로 자리잡을 것이다. 즉, 웹진은 대중문화 현상을 투영하는 거울이고, 웹상에서 소수 문화운동의 영토화를 진행시키는 주도자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웹진의 범위

아직 명확한 웹진의 개념 즉, 범위를 규정하기 어렵다. 이는 아직 웹진이 태동기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며, 학문적 성격을 명확히 내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웹진의 행태로 볼 경우, 웹진의 범위를 넓게 평가한 광의의 개념과 순수웹진만을 인정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나눌 수는 있으나 이마저도 명확한 경계를 긋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광의의 개념 : 웹상에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매거진으로 주간웹진, 월간웹진, 연간웹진, 개인웹진, 전자사보, 전자신문 등.

* 협의의 개념 : 매거진의 형태로 기존 출판매체의 홍보, 신문이나 사보의 성격을 배제한 순수한 의미의 인터넷 잡지.

웃음 코너

인간 복제

2154년 어느 날, 지구의 과학자들이 모여 토론을 했다. 그들은 이제 인간은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신은 인간에게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결정을 내렸다. 과학자 대표가 신에게 가서 말을 했다.

“신이여, 이제 우리는 당신이 필요 없다고 결정했소. 우리 인간을 복제할 수 있고 생명을 창조할 수도 있게 되었소. 이제 인간에게 떠나서 다른데 가서 사는 게 어떻겠소?”

신은 과학자의 말을 주의 깊게 듣다가 예의 바르게 대답했다.

“좋다, 그럼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지. 우리 인간을 만드는 시합을 하면 어떻겠는가?”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지. 내가 태초에 아담을 창조했을 때와 똑같이 한번 해보기로.....”

“문제 없습니다!”

과학자는 자신 있게 대답하고는 흠땀이를 집어 들었다.

그러자 신이 말했다.

“아니지, 내 흠 말고 너희 흠으로 해!”

美시애틀 6.8강진...250명 부상

2월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을 중심으로 태평양 북서부 지역에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해 250여명이 다치고 수십억 달러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게리 로크 워싱턴 주지사는 즉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재해관리청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지진으로 시애틀 시내 중심가를 관통하는 99번 고속도로 등 많은 도로와 건물이 부서지고 워싱턴주 서부의 약 2만여 기업과 가정에 전기공급이 끊겼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보잉 등 시애틀 소재 기업들의 건물과 시설이 일부 파손되기도 했다.

==> 지진 특집(13쪽)

지진이란 무엇인가?

지진이란 지판운동에 의해 유발된 응력이 지표로 전달되어 나와 지각이 흔들리는 것을 말한다. 지구내부에서는 매일 1000-5000회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지진은 세계 전지역에서 골고루 발생하지 않고 어느 일정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대를 지진대라고 하는데, 태평양 주변지역과 히말라야 산맥에서 알프스 산맥을 지나는 지역, 대양내의 해저 등이 여기에 속하며 지판과 지판의 경계부에 해당한다. 한편, 지진이 발생한 곳을 진원이라 하고, 진원 바로 위에 있는 지표면의 점을 진앙이라 한다.

지진의 규모와 진도

지진의 크기를 대표하는 수치로 절대적 개념의 '규모'와 상대적 개념의 '진도'가 사용되고 있다.

* 규모(매그니튜드·Magnitude)란 지진 자체의 크기를 측정하는 단위로 1935년 이 개념을 처음 도입한 미국의 지질학자 리히터(C. Richter)의 이름을 따서 '리히터 스케일(Richter scale)'이라고도 한다.

지진규모는 지진파로 인해 발생한 총에너지의 크기로 계측관측에 의하여 계산된 객관적 지수이며, 지진계에 기록된 지진파의 진폭, 주기, 진앙 등을 계산해 산출된다.

예를 들어 M5.0이라고 표현할 때 M은 Magnitude를 의미하고 수치는 소수 1자리까지 나타낸다.

* 규모 1.0의 강도는 60t의 폭약(TNT)의 힘에 해당되며, 규모가 1.0 증가할 때마다 에너지는 30배씩 늘어난다. 강도 6의 지진은 강도 5의 지진보다 30배이상 강력하고 강도 4의 지진보다는 900배가 강력하다.

3.5미만 : 거의 느끼지 못하지만 기록된다.

3.5-5.4 : 가끔 느껴지고 미약한 피해 (창문 흔들리고 물건 떨어짐.)

5.5-6.0 : 건물에 약간의 손상이 온다.(벽 균열, 서있기 곤란)

6.1-6.9 : 사람이 사는 곳이 파괴될 수 있다.(가옥 30% 이하 파괴)

7.0-7.9 : 주지진, 큰 피해를 야기한다. (가옥 전파, 교량 파괴, 산사태, 지각 균열)

8 혹은 그 이상 : 거대한 지진, 모든 마을이 파괴된다.

* 진도(Seismic intensity)란 특정장소에서 감지되는 진동의 세기를 말한다. 즉, 하나의 지진은 규모는 같으나 진도는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진도는 각 나라의 사회적 여건과 구조물의 차이점을 고려 설정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나라마다 실정에 맞는 척도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JMA Scale(Japanese Meteorological Agency Scale), 미국에서는 MM Scale (Modified Mercalli Scale: I-X II), 유럽에서는 로시-포렐 Scale(I-X), 그리고 동유럽에서 구조물을 중심으로 발달한 MSK Scale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기상청(JMA)이 정한 JMA계급을 사용하고 있다.

'JMA계급'은 0~Ⅶ까지 8등급으로 나뉘며, 진도 3은 건물이 크게 흔들리는 정도며, 최고 진도 6은 건물이나 구조물이 다수 파괴되는 정도를 말한다.

진도는 이처럼 상대적인 수치므로 진원이나 진앙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은 진도가 낮게 나타난다.

* 국제적으로 '규모'는 소수 1위의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진도'는 정수단위의 로마 숫자로 표기하는 것이 관례이다(예; 규모 5.6, 진도 IV).

따라서 '리히터지진계로 진도 5.6의 지진'은 틀린 표현이며 '리히터스케일 혹은 리히터 규모 5.6의 지진' 또는 단순히 '규모 5.6의 지진'이라 표현해야 한다.

진원(Hypocenter),

진앙(Epicenter), 진원지, 지진파

* 진원역은 지진이 일정한 넓이를 가진 영역에서 일어난 지진의 진원지역을 말한다.

* 진원은 진원역 중에서 최초로 지진파를 발생한 점 즉, 지진이 시작된 점으로 반드시 진원역의 중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 진앙은 진원의 바로 위 지표면의 지점이다. 진원지라고 하는 것은 진앙의 지명이다.

* 지진파는 매질(媒質) 내부를 3차원적으로 전달하는 중심파와 지구 표면을 따라서 전파되는 표면파로 구분되며 중심파에는 P파(primary wave)와 S파(secondary wave)의 2종류가 있다. P파는 매질의 입자가 진동하는 방향과 파동의 진행방향이 같은 종파이며, S파는 매질의 입자가 파동의 진행방향과 수직으로 진동하는 횡파인데, 매질이 고체일 경우에만 전달된다.

* 진원의 위치는 P파S파L파를 이용하여 알아낸다. P파나 S파가 진원을 나와 각 관측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지구 내부구조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는 P파나 S파의 전달속도가 물질의 탄성적 성질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며 일반적으로 무른 암석일수록 늦고, 단단한 암석일수록 빠르다.

또 층을 이룬 매질을 전달하는 L파는 주기(또는 파장)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는데, 이러한 현상을 분산이라 한다. 분산하는 방법 즉 속도가 주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것도 역시 지하의 구조에 따라 결정된다. 이 사실을 역이용하여 분산을 관측함으로써 지구 내부의 구조를 추정하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지진재해

1차재해란 강한 지진동에 의한 지표나 지하구조물의 파괴, 지반의 붕괴, 해일로 인한 가옥이나 선박의 유실·파괴 등이다.

2차 재해는 화재, 수도·전기·가스·통신망의 파괴, 생활물자 유통망의 파괴로 인한 생활의

혼란 등을 말한다. 따라서 도시의 경우 2차재해의 비중이 커진며, 화재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크다.



<그림 - 1989년 로마 프리에타 지진으로 파괴된 가스관에 의해서 발생한 화재>

지진대

대부분의 지진발생지역은 선이나 띠모양을 이루며 세계의 주요 화산대나 조산대와 거의 일치한다.

지진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은 태평양을 둘러싼 환태평양지진대, 동남아시아에서 인도 북부와 중동을 거쳐 지중해로 이어지는 알프스-히말라야지진대, 그리고 해령(海嶺)에 이어지는 지진대이다.

따라서 환태평양 지진대의 일본, 타이완, 필리핀, 뉴질랜드와 알프스-히말라야지진대의 이란은 지진다발국이다.

세계의 주요지진지역으로는 알래스카주의 태평양 해안, 멕시코-테말라-스타리카, 칠레, 일본, 필리핀-인도네시아-미얀마, 인도, 중국, 이란, 터키, 그리스와 알바니아·유고슬라비아·이탈리아·알제리·모로코 등이 있다.

판구조운동론(plate tectonics)

지구의 표층이라고도 하는 수십km 혹은 그 이상의 두께를 가진 암석권(lithosphere)은 태평양판, 북미판, 유라시아판 등 10여개의 판으로 나누어져 있어 각각 매년 수cm 정도의 속도로 제각기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상대운동으로 판경계부근에서 주로 지진이 발생하며 경계부근의 판내부(intraplate earthquakes)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이 이론은 대규모 수평면 운동이 지진, 화산 및 조산현상의 원인임을 설명하는 것이다.

진앙? 지진대?

지진이 발생하는 지점을 진원(Hypocenter)이라고 부르며 진원의 바로 위 지표면의 지점이 진앙(Epicenter)이 된다.

지진은 지표에서 대략 700km의 깊이까지 발생하는데 진원의 깊이가 70km이하인 지진을 천발지진이라고 부른다. 3백km이상이면 심발지진이 된다.

20세기 초 지진계의 발명이후 전 지구 표면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진앙을 정확히 밝힐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지진은 띠모양의 특정한 지역을 따라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전 지구 표면에서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은 없지만 특히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띠모양의 지역을 지진대라고 부르는데 화산대와 거의 일치한다.

전 세계 지진에너지의 75% 정도를 방출하는 환태평양 지진대는 태평양 주변을 따라 나타나는 지진대로 남미와 북미의 서해안을 따라 알래스카, 알류산열도, 캄차카, 일본, 필리핀을 거쳐 인도네시아로 연결되는데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 밑으로 침강하는 해구 주변에서 지진이 발생한다.

알프스-히말라야 지진대는 인도네시아에서 히말라야를 거쳐 지중해에 이르는 지역에 나타나는 지진대로 대륙끼리 충돌이 일어나면서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이외의 주요한 지진대는 대서양의 중앙지역을 따라오다가 다른 대양으로 갈라지며 길다랗게 이어지는 중앙해령 지진대이다.

지진의 종류

- 지진의 발생원인에 따른 종류 -

* 단층지진 : 단층이 처음 생성될 때나 이미 형성된 단층을 따라 새로운 파괴가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지진이다.

1906년에 샌 앤드레아스 단층을 따라 일어난

샌프란시스코 지진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 결과 샌 앤드레아스 단층면을 따라 연장 400km 이상에 이르는 지역에서 새로운 단층이 생성되었고, 단층의 동측은 남쪽으로, 서측은 북쪽으로 이동하여 수평으로 약 7m나 어긋나게 되었다.

* 화산지진 : 화산이 폭발할 때나 지하에서 마그마가 유동할 때 발생하는 지진이다.



<1945년 6월 28일 밤 paricutin 화산의 분출사진>

* 맨틀 내의 지진 : 맨틀 내에서 대류가 일어나게 되면, 대류가 일어나는 부분과 일어나지 않는 부분 사이에 대류의 속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마찰이 생겨 국부적으로 응력이 축적되어 지진이 발생하거나, 맨틀 상부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상태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와 맨틀내에서의 마그마 상승 운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지진이다.

* 함락지진 : 석회암, 석고 또는 암염층 중에 생긴 지하 공동의 붕괴에 의하여 발생하는 지진이다.

* 인공지진 : 인공적으로 지하 핵실험을 한다든지, 발파에 의한 지진이다.

- 지진의 발생 심도에 따른 분류 -

* 천발지진 : 지하 70km까지에서 발생하며, 대부분의 지진이 이에 속한다.

* 중발지진 : 지하 70-300km에서 발생하는 지진이다.

* 심발지진 : 지하 300-700km에서 발생하는 지진으로, 지진대 중에서도 주로 내륙지방에서 잘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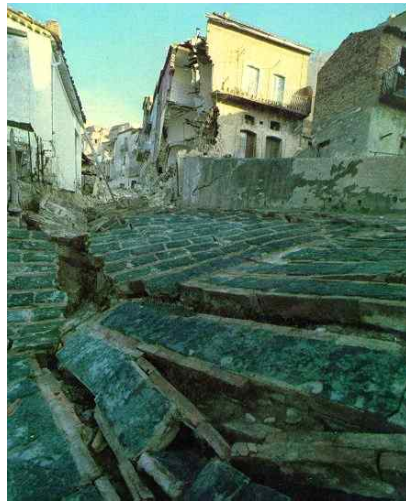
지진에 의한 피해

지진은 여러 면에서 재해의 원인이 된다. 지반의 진동은 구조물들을 흔들고, 응력은 그것들을 파괴점에 이르게 하여 붕괴시킨다. 어떤 종류의 토양은 지진의 충격을 반복해서 받으면, 자체의 강성을 상실하여 유화되기도 하는데, 액화된 토양은 건물이나 다리, 기타 지상의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다.

바다에서 일어난 지진은 흔히 해일이라 하여 무서운 파도를 일으키는데, 시속 80km 이상의 속도로 대양을 통과하면서 약 20m 높이의 물벽으로 해안 지역을 강타한다. 산사태와 화재는 지진과 함께 병발하면서 많은 사상자를 낸다.



〈멕시코 지진〉



〈이탈리아 지진〉



〈일본 지진〉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장민숙 김은희 성도님은 허선영 권철님의 초등학교 때부터의 오랜 친구로서 허권철님의 인도로 순복음중앙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김민희 성도님 또한 장민숙 성도님의 동네 동생으로써 허권철님의 복음을 듣고 등록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보기에 이들의 쌓아온 우정은 아름다워 보이는데 신앙 안에서 말씀과 더불어 이들의 우정이 변치 말기를 바라며 순복음중앙교회에 아름다운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은희 성도

주소 :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494-4

☎ 011-409-4927



장민숙 성도

예산군 고덕면 구만리구 442

337-9938



김민희 성도

예산군 고덕면 지곡리 274

337-9805



성지순례

9. 예루살렘



황금의 도시, 영원한 도시,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은 3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채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역사의 중심에서 아직도 곳곳하게 살아 숨쉬는 이스라엘의 수도이다. 아무런 보잘 것 없는 풍경과 전무한 상태의 부존 자원을 가진 유대 광야의 동편 가장자리에 우뚝 솟아있는 이 도시를 성경은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시 125:2) 하였다. 이런 아무 쓸모없는 땅이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았고, '일신교의 보루로서', '세계인의 성도'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10. 감람산



4개의 봉우리를 가진 조그마한 언덕으로, 가장 높은 봉우리가 해발 약 800 m 정도인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계곡 건너편에 있는 산이다. 이 산에는 감람나무(Olive Tree)가 많았기 때문에 감람산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예루살렘 보다 약 90 m 가 높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예루살렘 전체가 한 눈에 들어온다. 예수님 당시에는 나무가 우거져 있었으나, AD 1세기 경에 숲이 다 망가져 버렸다. 유대인들은 이 산을 출발점으로 하여 일련의 봉화들을 밝혀두곤 하였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동족들에게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유대인들은 죽은자들이 감람산 위에서 부활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그런 까닭에 예부터 이곳 감람산은 무덤 지역으로 자리잡았다.

11. 예수님 승천교회



복음서에서 예수의 승천에 관하여 유일하게 말하고 있는 누가에 따르면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눅 24:50 ~ 51)라고 보도하여, 예수의 승천이 감람산인 것을 언급하고 있으며, 동시에 누가의 저술인 사도행전에서도 승천 기사를 기록하면서 예수 승천 직후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행 1:12) 고 묘사하고 있다. 안식일에는 제한된 거리 (약 1 Km) 만을 걸을 수 있는 율법 규정을 통하여 예루살렘에서부터 승천하신 곳까지의 거리를 잘 나타내 주는 표현인 것이다.

12. 주기도문 교회



주기도문이 시작되는 라틴 말을 따서 교회 이름을 지었다. Pater Noster라는 말은 '우리 아버지'라는 뜻의 라틴 말이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곳이라고 전해 오는 곳이다.

이세상 말기에 나타나는 징조들에 관하여 설파하신 곳도 이곳이라고 전해진다. 예수님의 말씀들은 기리기 위하여 4세기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곳 감람산 위에 처음 기원 교회를 세웠으나 614년 페르시아인에 의하여 파괴되고 12세기에 십자군에 의해 다시 세워진 교회 역시 후일 회교도에 의해 파괴되고 만다.

현재의 교회는 1875년 프랑스에서 카톨릭의 카르멜파 수녀들을 위한 수녀원과 함께 건립한 것이다. 수녀원 건물 벽에는 한국어를 포함하여 세계 62개 언어로 주기도문을 번역하여 새겨 놓고 있다.

기독교인 공개총살 현장

이름 : 리 영희

나이 : 37세 여

일시 : 2000년 2월10일 12시 정각

장소 : 함경북도 무산시 장마당

방법 : 장마당의 상점들을 모두 문을 닫게 하고 전 주민이 다 나와서 목격하도록 미리 알림.

처형당하는 이유를 남녀 당원 두 사람이 나와서 연극식으로 해설하고 당과 조국을 배신하면 이렇게 처형당한다고 인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줌. 하반신은 고문으로 이미 일어설 수가 없이 만신창이가 된 사람을 말뚝에 새끼줄로 목과 가슴 그리고 허리를 묶음.

처형당하는 사람의 눈은 형검으로 가려졌고 부서진 다리로는 상체를 버틸 수가 없어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음.

사격수들에게 조준을 명하는 장교가 "발사 준비!" 할 때 사형을 기다리던 리영희 성도는 "예수를 믿으시오!" "주여!" 하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는 순간 "발사!" 하는 소리에 더 이상 리영희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저격수의 총성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3명의 저격수가 머리에 4발 가슴에 4발 배에 4발을 쏘아서 온몸에 살점이 터지고 심장에서 터진 피는 구경꾼들에게까지 튀었고 땅은 순교자의 피로 검붉게 물들었다.

시체는 순식간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됨 (일반사회사범들은 3발씩을 쏴)

위의 글은 복음을 전하다 처형당하는 장면을 같은 동료 전도인이 옆에서 지켜보고 생생하게 전한 보고중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북쪽 땅에는 또 한 사람의 순교자를 내었습니다.

순교한 리영희(이영희)성도는 97년 가을에

굶주림을 견디다 못하여 두만강을 건너 우리 지하처소교회로 들어온 탈북자였습니다. 그는 보기 드물게 대학을 나온 지식인이요 성분도 좋은 당원 이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정으로 숙청 당해서 남편과 함께 아오지 탄광의 노동자로 전락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들 부부를 받아들일 때에는 남편은 복막염으로 사경을 헤 메일 때였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치료했고 먹이고 입히며 돌보았습니다. 또 위성방송을 통해서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게 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돌 봐주는 인정에 그저 감사할 뿐이더니 차츰 가치관이 바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상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는 지금 까지 속아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한 뒤에는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속도는 대단히 빨랐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탈북자 생활에서도 밤새워 성경을 읽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3개월 정도를 우리와 같이 지낸 그들 부부는 남편의 질병이 우선해지자 두고 온 가족들 때문에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싸 보내면서 성경책을 함께 보내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음해(98년) 봄에 왔을 때에는 믿음이 많이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리영희는 천정동생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전도도 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병세는 그 전처럼 다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시 그들은 우리와 함께 지내면서 본격적인 성경공부와 전도의 방법을 배웠고 주의 일 군으로 양육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명감으로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 여름철에 리영희는 쌀 대신 달러를(북한에서도 미화나 중국 위엔 화는 교환해 쓰는 방법이 있음) 가지고 갔고 의약품과 특수 제작된 소형성경을 운반하기 시작했습니다.

98년부터 99년 말까지 리영희는 수차에 걸쳐 이일을 반복했고 그 남편은 건강관계로 집안을 돌보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그러던 중 금년(2000년) 1월 말경 함경북도 무산에서 체포되어 2주간의 모진 고문 끝에 처형당한 것입니다. 처형당하기 전에 하반신은 고문으로 이미 마비가 되었고 많은 출혈로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고문하는 보위부원들에게 "예수를 믿어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악질 반동 예수쟁이 죽어봐라"하며 채찍과 몽둥이는 리영희성도의 몸을 파고들었고 그는 신을 대신 "주여!"를 외쳤습니다.

초죽음이 되도록 처참한 고문을 당하고도 우리 선교 캠프나 선교사들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함으로 아직까지 우리는 이 일들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리영희는 장렬한 한 사람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지금 북한에서는 도처에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99년 한 해만해도 400여명을 공개처형 했는데 그 중의 3분의 1은 기독교인으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북한 도처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55년 동안 북한의 죄악을 씻어 내려면 누군가 순교의 피를 흘려야 할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도 순교의 피를 흘려야 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우리는 단순히 배고프고 헐벗은 탈북자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주로 영접케 했고 사명자로 키웠으며 순교자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햇빛이 들지 않는 땅굴 속에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 죽기를 결심하고 기도하며 순교의 때를 기다리는 제2 제3의 리영희가 양육되고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북한 땅에 수십 개의 지하교회를 만들었고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 선교를 멀리서만 바라볼 때가 아닙니다. 더욱이 일하는 종들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합심하고 협력하고 또 기도하고 후원해야만 할 때입니다.

주님이 가장 관심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고,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랑의 손길과 기도와 후원으로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몰려오는 탈북자 수는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저희는 힘의 한계를 느낍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과 함께 동참할 일군을 보내주소서!"

"이 일에 후원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소서!"

"기도로 우리에게 힘을 실어줄 동지들을 만나게 해주소서!"

저희들은 순교를 당하는 날 까지 이 일을 할 것이며, 이 일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읽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도와 후원을 보내주신 사랑하는 동역자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두만강 변에서 가조선교사로부터 -

◎ 3월

1. 성가대헌신예배 - 3월 4일, 오후 7시
2. 문서발간위원회 헌신예배 - 3월 11일, 오후 7시
3. 성경통독대회 - 3월 19일~4월 21일, 오전 5시
창세기~열왕기하
4. 봄심방 - 3월 20일~4월 14일
5. 찬양예배 - 3월 25일, 오후 7시
6. 신앙서적 - 행복한 사람에게는 73가지 향기로운 삶의 규칙이 있다
「이대희 저」
7. 교회환경미화 - 3월 30일(금), 오전 11시
8. 구역장 모임 - 3월 15일, 오후 8시

◎ 4월

1. 신앙서적 - 목사님 심장 「글렌 와그너, 글렌 마틴 공저」
「진웅희 역」
2. 성경쓰기 - 4월 1일~30일, 에스겔 31장~다니엘 12장
3. 교사헌신예배 - 4월 1일, 오후 7시
4. 종려주간 금식기도회 - 9일~14일
5. 부활절예배 - 4월 15일
6. 성경퀴즈대회 - 4월 15일, 오후 5시
범위 : 히브리서
구역 및 개인별 대항
푸짐한 시상식
7. 목회팀장 모임 - 4월 9일, 오후 1시
8. 목회팀헌신예배 - 4월 25일, 오후 7시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 10:25)

"저 땅에도 봄은 오리라"

연변에서 가조

저 동토의 땅에도
햇살은 비치리니
분명코 꽃은 피우리라.

저 붉은 땅에도
은혜가 내리리니
복음은 열매를 맺으리라.

바람아 불어라
열풍아 불어라
언 땅을 녹이자.

靈風(영풍)아 불어라
神風(신풍)아 불어라
心靈(심령)을 녹이자.

구름아
비를 내리라
광야를 적시자.

대지야
다시 기운을 내자
버려진 땅을 소생케 하자구나

땅아
네가 싹을 내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면
주께선 기필코 열매를 맺게 하시리라.

번개야 처라 뇌성아 울려라
복음은 번개가 되고 기도는 뇌성이 되라
얼어붙은 심령을 쪼개자구나.

광풍아 불어라
폭우야 쏟아져라
죄악의 땅 범죄의 땅을 씻어내자구나

白雪아 내려라
너희 흰옷으로 용의 붉은 헛바닥을 가리자
저들의 허물을 덮어 주자구나

해야 너희 온기를 발하라
어서 봄이 오게 하라
훈풍으로 형제의 땅을 위로하자.

그린빌딩(Green Building)

그린빌딩은 환경적으로 향상된 방법으로 설계, 건설, 운영, 철거되는 빌딩.

즉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을 목표로 에너지부하 저감, 고효율 에너지설비, 자원재활용, 환경공해 저감기술 등을 적용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설계 건설하고 유지관리한 후 건물의 수명이 끝나 해체될 때에도 환경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계획된 건축물을 말한다.

그린빌딩은 1992년 리우 환경정상회의 이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환경과 개발의 상충이 아닌

공존의 경제 개발 방식이 중시됨에 따라 등장하게 된 환경친화적 건물이다.

즉 이제까지의 건물에 대한 기본 개념인 '인간이 거주하며 모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이라는 차원을 넘어, 현재와 후세에 걸친 인류의 생존과 지구환경 문제에 기여하기 위한 건축분야의 대안으로 제안된 개념.-->그린빌딩의 대표적인 기술로는 에너지 부하를 줄이는 기술과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건물의 냉난방, 조명 등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에너지의 사용은 환경오염 물질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건물로부터 유발되는 각종 오염원의 발생을 줄이고 발생된 오염원에 대해 주위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환경공해 저감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건물로부터 나오는 폐자원을 재 사용하거나 재생이 불가능한 자원의 경우에도 환경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처리하는 기술 등이 중요하다.

<그린빌딩은 에너지 절감과 환경보전을 목표로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난 90년대초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건물로 국내 건립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통 해결하기 위한 10가지 충고

1. 냉정한 자세로 열기를 식히도록 노력하라.
2. 자기 자신에게 큰 소리로 외치라.
3.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화난 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상상해 보라.
4. 화가 나면 말하기 앞서 열까지 세라.
5. 왜 내가 화를 내고 있나를 낱알이 열거한 목록을 만들어 보라.
6. 터뜨리기 전에 이 분노가 가치있는 행위인가? 하고 자신에게 질문해 보라.
7. 노하기를 잘 하는 사람들과 가까운 교제를 피하도록 하라.
8. 사소한 의견 차이는 무시하도록 노력하라.
9. 자기를 주장할만한 권리는 하나님께만 있음을 늘 알라.
10. 계속하여 혀를 철저하게 자제하도록 노력하라.

헌혈왕 손흥식

- 헌혈은 고귀한 생명을 살립니다 -

“헌혈은 건강한 몸으로 남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365차례의 헌혈을 한 통계청 전남통계사무소 손흥식 산업통계팀장(51)이 국내 최다 헌혈자로 선정돼 최근 발간된 2001년도판 한국기네스북에 올라 화제다.

지난 84년 5월 첫 헌혈을 한 손씨가 17년동안 헌혈한 피의 양은 총 17만6000cc로 그의 몸에 있는 혈액 4800cc의 36배가 넘는다. 손씨의 헌혈 횟수는 연 평균 22차례로 평생 1~2차례 헌혈을 할까말까하는 일반인들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다.

“우리 몸의 혈액 중에 10%는 사용되지 않고 대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헌혈을 해도 일상 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손씨는 또 지난 94년 7월 심부전증 환자에게 한쪽 신장을 떼어줬으며 지난해 4월에는 사망 후 자신의 장기와 시신, 뼈 등을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광주·전남본부에 내놓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세계 최다 헌혈자는 지난 66~90년 사이 25년동안 1087차례를 한 미국의 알렌도스더로 알려졌다.

동정

목회자

1. 기도원 / 2월 26일~3월 1일
봄심방, 성도중보기도,
교회 중장기 계획
2. 제주도여행 / 3월 12일~14일
총서지방회 주관
3. 핸드폰 번호 변경 / 016-436
-5278

교인

1. 입학 / 박승철 : 동양공전(서울)
박연수 : 신성대(당진)
손정인 : 천안공전(천안)
2. 졸업 / 박선정 : 청주대(청주)
3. 교육 / 구옥순성도
의상인테리어(복지회관)
4. 취업 / 장명희권찰(남산화원)
5. 이사 / 현덕규집사 가정.
* 당진읍 채운리 지석APT 103동
105호

교회

1. 설치 / 예배 CCTV 카메라(녹화)
방범카메라
인터폰(사택, 목사님서재
강단, 유아실, 교육관,
사무실, 청년회실)
2. 공사 / 교회진입로 보수
성전지붕 보수
성전 도배
3. 노아의 집(양노원) 방문 / 한나여
선교회, 3월 15일
4. 성구 배치 / 강대상, 장의자,
성가대발판

예배 및 각종 모임 안내

	대상	요일	모임	시간	비고
예배	장년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예정
			2부 예배	오전 11시	
		"	저녁 예배	오후 7:00(11월~4월) 오후 8:00(5월~10월)	
		수요	저녁 예배		
			아침 예배	오전 11시	
	주교	금요	구역 예배	각 가정에서	
		주일	오전 예배	오전 9시	
	학생	"	오후 예배	오후 3시	
		토요	성경공부	오후 5시	문화활동 있음
		주일	정기 예배	오후 5시	
기도	장년	토요	정기 예배	오후 7시	
		금요	철야기도회	밤 9시	
교육	장년	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시	
		목요	초신자양육	오전 11시	2일
		목요	새신자훈련	오후 1시	1일
		화요	평신도훈련	오후 8시	
		목요	평신도훈련	오전 11시	
		화요	구역장공과	오전 6시	
		화요	제자훈련(초급)	오후 9시	
		목요	제자훈련(중급)	오전 9:30	
			제자훈련(고급)	오전 9:30	
		주중	일대일양육	정한시간	가정, 직장
		목요	영적성장세미나	오전 11시	격월
모임	성가	수요	교사대학	저녁예배후	현직 교사
		주일	연습	오전 10시	오후 12:30
활동	울동선교단	토요	연습	오후 5시	
		수요	1기(레마)	오전 10시	연습
			2기(살롬)	오후 1시	
		토요	3기(셀라)	오후 5시	
	찬양선교단		연습	매주 화,목	오후 7시
	컴퓨터	월요	컴퓨터교육 및 작업	오후 5시	컴퓨터팀
		화~토	컴퓨터교육	오전 10시 ~오후 9시	PC방 운영 교육생
	기도팀	월~토	1시팀	오후 1시	개인기도 중보기도 교회기도
			3시팀	오후 3시	
			9시팀	오후 9시	
	문서	화요	문서발송	오전 10시	주보, 엽서 등

▲ 신나는 퍼즐 ▲

<가로 열쇠>

1			2			3
4	5			6	7	
8		9	13	10		11
		12				

1. 이런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음(마 5장)
4. '열리라'는 뜻의 아람어(막 9장)
6. 세례를 받고 이것을 얻으라(행 2장)
8. 이것은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한다(마 13장)
10. 이런 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연자뱃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마 18장)
12. 제물로써 이것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림(레 2장)

<세로 열쇠>

1. 000 풍성한신 하나님(엡 2장)
2. 이 사람의 눈이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를 바라봄(시 123편)
3.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이것이 있음(고후 3장)
5. 사하라임의 두 번째 아내(대상 8장)
7. 징계가 없으면 이런 자요, 참 아들이 아님(히 12장)
8. 돌아온 탕자의 손에 끼운 것(눅 15장)
9. 장막을 이것이라 일컫는다(히 9장)
10. 재물과 이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잠 3장)
11.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네 친구에 의해 지붕을 뚫고 들어가 예수님께 치료받음(막 2장)

♣ 경답을 각성하여 3월 25일까지 제출하면 추첨하여 시상함

▲ 문서발간위원회 ▲

위원장 : 김미진 집사
 서 기 : 이종희 성도
 회 제 : 구옥순 성도
 위 원 : 박순남 집사
 손현숙 권찰
 윤희자 전도사
 이영주 성도
 편 집 : 한승권 목사
 도우미 : 류정훈 성도
 김진숙 선생

▶ 교회를 찾아오시는 길 ◀

